

이 주의 **이용플** 입시 용어 풀이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가산점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준다는데...”

 내일교육이 좋아

아이가 자연 계열인데 수능에서 사탐 과목을 선택하고 싶다고 해요. 성적도 사탐이 더 잘 나오지만, 정시에서 과탐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서 고민이네요. 가산점이 큰가요?

♡ 좋아요 0 💬 댓글 0

 고1 학부모
사탐은 가산점 안 주나요? 우리 애는 인문 계열이에요.

 제발 공부하자
우리 애는 벌써 '사탐런' 했어요. 가산점 받는 것보다 성적 올리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내일교육

가산점은 정시에서 특정 선택 과목의 응시자에게 점수를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

가산점은 주로 과학탐구 과목에 부여

일반적으로 대학은 자연 계열 모집에서 수능 과학탐구(과탐) 과목을 응시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에 더해 동국대는 자연 계열 지원자 중 <미적분> <기하> 응시자에게도 가산점을 줍니다. 연세대와 중앙대처럼 인문 계열 지원자 중 사회탐구(사탐) 과목을 응시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가산점 계산 비율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탐구 과목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각 대학의 2026학년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보면,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5%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신여대는 과탐 최상위 성적 한 과목에 10%의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가산점을 계산할 때는 해당 과목의 백분위, 표준점수, 변환 표준점수(변표) 중 무엇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백분위에 가산점 3% 추가’라면 해당 과목 백분위의 3%를 계산해 더해주면 됩니다. 백분위가 94라면 가산점은 2.82점, 평가에 반영되는 점수는 96.82점이 됩니다.

가산점 계산이 어렵다면?

대학별 환산 점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계산기는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쎈(SEN)진학 나침판’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난 기사로 본 ‘가산점’

지난해처럼 공통 변환 표준점수 사용 시 과탐 백분위 79인 학생이 사탐을 선택했을 때 **가산점 3%와 5%의 영향력**을 살펴보자. 만약 3% 가산이라면 사탐에 응시해 백분위 84~85를 받으면 가산점보다 유리한 상황이 된다. 가산점 5%라면 사탐 선택 시 백분위 88~89를 받으면 된다. 즉, 과탐으로 3등급 끝선을 받은 학생이 사탐으로 3등급 상단을 받으면 유불리가 사라지므로, 수험생들은 후자가 더 수월하다고 판단한다.

이 소장은 “과탐에서 4등급을 받는 학생이 사탐으로 변경해 2~3등급을 받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 **가산점을 뛰어넘는다**”라고 설명한다.



1178호
‘과탐 ↓ 사탐 ↓
과탐+사탐 ↑ 대학별
과탐 지정·가산점
확인해야’

자연 계열 학생들, 왜 과탐 가산점 두고 사탐런?

가산점이 있음에도 사탐런이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성균관대의 2025 수능 탐구 영역 변표를 활용합니다(표). 과탐에서 백분위 79를 받은 학생의 변표는 61.34점입니다. 여기에 가산점 3%를 부여하면 63.18점이 됩니다. 사탐에서 백분위 84~85를 받으면 넘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가산점 5%를 부여하면 64.41점으로 사탐 백분위 88~89의 변표와 비슷합니다.

백분위 79는 3등급 끝자리에서 4등급 초반에 해당합니다. 백분위 85~89는 2등급 끝자리에서 3등급 초반입니다. 선택 과목을 사탐으로 바꾸고 등급을 1등급 정도만 더 올리면 가산점에 의한 유불리가 없어집니다. 여기서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다면 탐구 과목을 바꾸는 편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과탐 중하위권 학생들이 사탐런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표_ 성균관대 2025 수능 탐구 영역 변표(일부)

백분위	변환 표준점수
89	64.53
88	64.20
87	63.91
86	63.72
85	63.48
84	63.14
(생략)	
80	61.72
79	61.34

자료 성균관대 <2025학년 정시 모집 수능 성적 반영 방법 및 변환 표준점수 안내>

가산점이 경쟁률을 흔든다고?

가산점은 정시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세대는 2025 정시에서 인문 계열에 지원하는 사탐 응시자와 자연 계열에 지원하는 과탐 응시자에게 각각 3%의 가산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인문 계열 모집의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근 몇 년간 표준점수에서 유리한 자연 계열 학생들이 인문 계열로 교차지원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는 사탐에 가산점을 주니 교차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이 줄고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대학은 주로 특정 과목을 공부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이처럼 교차지원을 막기 위해 가산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